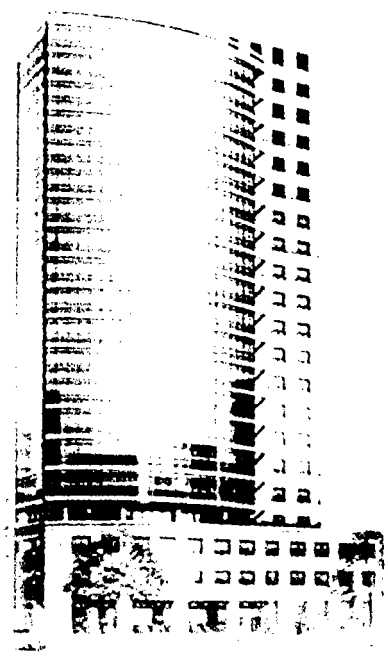
24시간 꺼지지 않는 IT 교육의 등대, 삼성멀티캠퍼스

류 병 수 | 삼성멀티캠퍼스 소장

삼성멀티캠퍼스는 1989년 삼성SDS의 사내 교육기관으로서 시작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국내 최대, 최고의 IT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1997년 테헤란로 중심부에 위치한 20층 단독 건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IT 전문 인력 양성기관임을 선언했고, 이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IT 전문가 양성기관 및 선도기업으로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삼성멀티캠퍼스 빌딩

또한, 최근에는 국내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현재 중국과 미국 등지의 유수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선진 교육 방법의 도입 및 우리의 교육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첨단 장비와 전문 강사진을 통한 단기 집합 교육과정

서울 강남의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멀티캠퍼스는 지상 20층, 지하 8층의 독립 건물에 하루 1,700명이 동시에 학습 가능한 46개의 LAB실, 18개의 분임실, 국제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LAB실마다 1인 1 PC 교육이 가능하도록 최신 기종과 더불어 각종 실습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였다.

이러한 시설 기반 위에 멀티캠퍼스에 상주하는 전임 교수 43명 이외에도 Java, C/C++ 등의 개발 TOOL, UNIX/Linux, DataBase 등의 기반 기술 및 CISA, CPIM, e-CRM, e-SCM 등 e-Biz/컨설팅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 1,036명이 강의를 하

고 있다. 이들 전문 강사진을 통해 발빠르게 변화하는 IT 관련 업종 분야별로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 개개인이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취업자, 전직 희망자 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집합 교육과정 SW College

IT 분야의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IT 사관학교로서, 소프트웨어 칼리지(SW College)는 전산 기초부터 분야별 전문기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IT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 모두 3개월~6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하루 8시간씩 전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 IT 업체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활동과 더불어 교육 수료 전후에 교육생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9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을 무대로 하는 교육 기관 협력 사업 IT Click

현재 국내의 IT 전문가들은 서울이라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멀티캠퍼스는 정보기술 인력난 해소와 지방 IT 인력 양성을 위해 IT Click(http://www.itclick.co.kr)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규모의 교육기관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2월 전국 16개 주요 도시의 8개 대학과 23개 사설 IT 전문학원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연간 2만 5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멀티캠퍼스에서 인증한 전문 강사들과 고품질 교육상품을 전국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지방 IT 산업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국가 공인 자격으로 각광받는 e-Test

e-Test(http://www.e-test.or.kr)는 지난 1월 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한 지 한 달 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공기업 5곳, 일반기업 7곳, 대학 5곳에서 공식 IT 자격제도로 채택하려고 하며, 자료를 요청한 곳까지 포함하면 5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2000년 한 해 1만 5천 명이 응시한 국내 최고의 정보화 자격 인증시험인 e-Test는 그 동안 민간 자격으로 머물다가 국가 공인을 통해 국가 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국가가 민간 자격의 공신력과 품질을 검증했다는 판단으로 기업과 대학의 잠재 수요가 꿈틀거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Test는 기업에서 1인 1 PC로 사무자동화가 실현되면서 실무에 필요한 임직원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체 임직원의 정보활용능력 평가에 안성맞춤이며, 향후 기업마다 e-Test를 채용의 필수조건으로 삼아 인력을 선발할 경우, 입사 이후 별도 정보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단기간에 '컴퓨터의 TOEIC'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시행처인 삼성SDS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삼성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시부터 e-Test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계획이며, 현재 e-Test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기업과 협의하여 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적

극 협의중이다.

e-Test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상식과 정보검색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처음으로 국제공인자격 시스템과 견줄 정도로 CBT(Computer Based Testing)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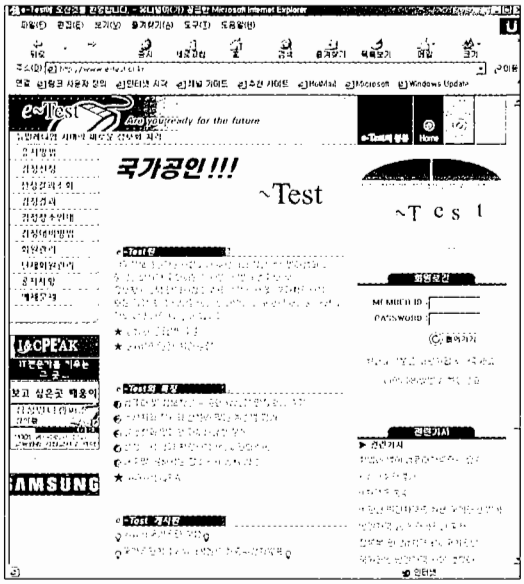
e-Learning의 중심에 선 e-Campus

삼성SDS의 기술력과 멀티캠퍼스의 오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998년 출범한 e-Campus(http://www.e-campus.co.kr)는 수많은 원격교육업체의 난립 속에서도 특화된 교수 설계 기법과 운영 방식에 의해 차별화된 학습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T, 어학, 경영 등 3개 분야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엄선된 교육과정만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주요 지식을 한 자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강 신청에서 수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과정별 Q&A, 첨삭지도 등을 위한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의 교육 품질을 자신한다. 현재 e-Campus는 1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8,000명이 동시에 수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과 확장성, 안정성이 뛰어난 원격교육 운영 플랫폼인 eduPort 3.0을 출시하였다. eduPort는 각 기업고객의 원격교육환경을 고려해 사용자 편리성 위주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였으며 체계화된 원격교육운영 기능과 더불어 커뮤니티, 사내시스템 연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 추진정책과 교육환경개선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e-Learning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원격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수요자들은 Contents부터 Total Solution



삼성멀티캠퍼스 홈페이지

까지 제공받기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맞추어 출시한 e-Campus의 eduPort는 이러한 국내 원격교육운영 플랫폼 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Campus는 eduPort 국내판과 더불어 영어, 중국어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여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를 공략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변화하는 IT 시장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의 방향을 잃기 쉽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확한 로드맵과 충분한 교육,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삼성멀티캠퍼스의 다양한 상품들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4시간 항상 꺼지지 않는 등대불빛처럼 누구에게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멀티캠퍼스와 함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